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남부리 1-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남부리 1-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Ō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령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다음주일(6월4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만왕의 왕께서 사자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그리스도의 영광

8. 수동적인 그리스도의 초청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 (요 6:3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요 5:17,18).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초청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은혜를 받은 자의 움직임과 그리스도의 응답이 담겨 있다. 누구든지 주께로 오는 자에게만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내어 쫓아내지 않겠다는 특이한 형태의 약속도 담고 있다. 영혼의 상태가 날마다 흔들리는 죄인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은 무엇보다 더 귀하게 들려고 또 쉽게 믿어지며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고 그 위에서 쉼을 얻게 한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는 확장되고 있지만, 그리스도도를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렵다(마 24:24,25).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결한 믿음이 요청되고 있으며,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마 24:44). 돈과 명예를 추구함도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인간의 종교도 아니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 주는 믿음도 아니다. 그러나 이 땅의 종교는 인간의 충족을 위하여 문화, 경제, 부, 권통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왕하 17:27,28)! 이들은 그곳에 종교와 문화와 율법을 섞어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왕하 17:28). 그러자 유대교는 더욱 유대교로 변하였다(왕하 17:32,33). 유대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런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경의 지도 아니하며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도 존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신자들에게 세상의 성공과 부와 물질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여 좁은 길을 걷기를 외치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향해 방해자라며 핍박하고 살해하는 현상이 아닌가(마 16:1-3)! 인간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경교는 결코 없다(눅 17:1). 기도의 영과 말씀에 의지함이 없이, 인간의 아름다움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생명의 말씀에서는 미약하기 중심적인 삶이 되고 만다. 십자가 앞에서 ‘주여 이 재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고 하신 주님의 책망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참신자들은 세상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행 2:1-4).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원래 구약의 칠절절 절기였던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였기 때문입니다(레 23:15-17).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종말론적 은혜임을 증거했습니다(행 2:16-21). 또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예수님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행 1:8).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계실 때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다음 주일(6월4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행 1:14). “지은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을 제공하라 하라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예워주소도 아무 근심 없도다”(찬 245장).

*2006년 제2차 청지기 문헌

6월 16일(월) 저녁 7시 30분에 있을 예정이오니 온전하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전사 수련회 5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30일(화)까지 갈릴리 호텔에서 있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한다는 것과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 15:18,19).

진심으로 예수님의 초창의 말씀을 듣자. 조심함으로 은혜를 받아. 부정적인 형태의 약속은 면류관이나 천국 같은 긍정적인 약속보다 우리 죄인들을 인간의 거룩함으로 속이며 그것이 믿음인 것인양 가장 쉽게 불리게 한다. 그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간담하고도 명료하게 은혜의 영광을 제공하시 주신다(요 14:1).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종파에 시달림을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이다.

어느 신학자는 모든 성경 안에서 그가 꼭 볼려고 하는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초창이다. 이 은혜를 배풀어 주시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참으로 고난과 은혜가 땀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감히 어떤 피조물이 다는 피조물을 향하여 ‘내게로 오면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가 같은 인간으로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히 2:10,11)! 참으로 그분의 위엄과 은혜는 때로 높을 수 없다. 인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는 온전히 바로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 안에서만 성령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모든 만물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 이상이다. 즉,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유일성만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찬란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요 17:1).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요 17:3). 이 영광은 어느 누구든지 가까이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있을 수 있는 영광이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결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이 틀림이 없다는 결론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신적인 일관성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대적이요, 모든 원수의 두목으로 인정하고 힘을 다해 배척하고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인 것이다(딤후 2:10,11).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처녀의 몸통을 통해 오셔서 죽음을 감당하실 때에도 친히 천국의 문을 믿는 자들에게 열어 주신 것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간절한 초창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PENTECOST

But Peter, taking his stand with the eleven, raised his voice and declared to them: "Men of Judea, and all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this be known to you, and give heed to my words." (Acts 2:14)

Originally, Pentecost was the culmination of the Old Testament Feast of Weeks. The Israelites celebrated it fifty days after the festival of First Fruits, which took place in conjunction with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t Passover (Lev. 23). Passover commemorated the Lord's sparing of the Israelites on the night He struck down the Egyptians,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signified the haste of their preparation to depart. First Fruit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grain harvest, and signified Israel's gratitude to and dependence on God. Feast of Weeks was the great celebration of thanksgiving for the end of the grain harvest, and it focused on the blessings and benefits of God fulfilling His promises. God established these special times with Israel to help them remember the importance of trusting Him. The sequence from Passover to Pentecost is very meaningful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Jesus' crucifixion at Passover, similarly, was the sacrifice for the deliverance of His people, and His death immediately cleansed and changed our sinful position. His resurrection was the first fruits of all those asleep, and the subsequent pouring out of the Holy Spirit on Pentecost was the fulfillment of what His sacrifice had promised. Today we celebrate Pentecost as the anniversary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Church, recognizing that our Christian faith is deeply rooted in these Old Testament festivals.

When the Holy Spirit came on Pentecost, Peter stood amongst his brethren and said, "Men of Judea and all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this be known to you and give heed to my words" (Acts. 2:14). He preached a powerful sermon to those who were witnessing its effects. His preaching of Pentecost explained the new things that God was now doing.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rought new power from heaven,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their own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ts. 2:2-4). Jesus' disciples and followers had prayed and waited for the promised Spirit. The loud noise of His coming attracted a crowd. The devout men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that had gathered in Jerusalem to celebrate Pentecost wanted to know what was happening because they were each hearing God's Word in their own language (Acts. 2:5-8). They were witnessing the new power from heaven, but did not know it.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rought a powerful new message from heaven to earth. Peter reminded his hearers that, knowing Joel's prophecy (Acts. 2:16-21), they should have recognized what they were seeing as a work of the Spirit, and not a result of drunkenness (Acts. 2:15). The new message sent by the Father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as to focus on the Son of God. Peter rebuked the Jews

for crucifying and killing Jesus (v. 23), and told them that "God raised Him up again, putting an end to the agony of death,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in its power" (v. 24). He recited the prophecy of the Resurrection (vv. 23-31), quoting Psalm 16:8-11. Since David was speaking of the Messiah (v. 31) and since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v. 32), Peter continued, Jesus must be the Messiah (v. 36). He told them, "And it shall be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v. 21). He specifically clarified,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created a new community. After Peter exhorted and edified the crowd, "they were pierced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Brethren, what shall we do' (v. 37)?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v. 38).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v. 41). Jesus had promised Peter that He would build His church upon him (Mt. 16:18), and He did! Jesus died so that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could be established and grow.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rought a new purpose to life. Before His ascension, Jesus told His disciple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on the Day of Pentecost. Three thousand souls were saved and went home to their own nations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Jesus commissioned His disciples, telling them,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He reminded the Emmaus disciples,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would suffer and rise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Luke. 24:46-47).

My dear friend, Pentecost is not a story, but a real event. The people who gathered on the Day of Pentecost focused on Jesus. They did not gather to fight against each other. They did not gather with pride in their hearts. They had nothing but Jesus in their hearts and home. Do you have Pentecost in your heart and home? Is today just a day to remember the Holy Spirit, or is it a day to live it? The Holy Spirit is an amazing blessing that brings a new power, a new message, a new community, and a new purpose into every believers life. I hope that Pentecost and not earthly treasures is stored within you. 🌿

다들 주일 설교

성령 강림절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14)



김성관 목사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원래 오순절은 구약 시대 칠칠절의 최절정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곧 유월절의 무교절과 맞물려 있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기념했습니다(레 23:3).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급박하게 준비해야 했던 상황을 상징합니다. 초실절은 곡식의 수확이 시작되는 때에 행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곡식 수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드러진 최대 추수 감사 잔치였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절기들을 세우시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일련의 절기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당시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했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였고, 그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 교회가 세워진 날로 기념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구약의 절기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행 2:14). 그는 성령 강림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능

성령의 강림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권능을 가져왔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들린 큰 소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행 2:15).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진 새로운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해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23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24절). 베드로는 시편 16:8-11을 인용하면서 부활에 대한 예언을 낭송했습니다(23-31절). 또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말한 대로(31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32절),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36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21절). 베드로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새로운 공동체

성령의 강림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을 혼계하고 권고한 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37절). 베드로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38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 천이나 더하더라”(41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약속하셨고(마 16:18).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 목적

성령의 강림은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건의 진실입니다. 삼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각각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46, 47).

새로운 메시지

성령의 강림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새롭고 강력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행 2:16-21) 지금 그들의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술에 취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행 2:15).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진 새로운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해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23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존심을 모두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가정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오늘은 단순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성령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권능과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가져다 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의 보화가 아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은총의 역사가 깊이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세 가지 세상에 알려진 바울 (행 19:13~20)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오직 은총의 복음을 전하였다. 자기의 뜻과 의지는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존재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항상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세 가지 세상에 알려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 회개하자.

이 세상에서 알려진 바울

바울은 세상에 알려진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쓴 편지, 간증을 통해서 알려졌다(베후 3:15).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적대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사렛 예수의 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시키는 이단의 과수라고 알려졌다(행 24:5).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된다. 바울은 자랑, 존경, 복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는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교만, 자랑, 외식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졌다. 아그립바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행 26:28).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부였다. 종교인, 철학자 등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행 17:18).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는가?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였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자신이 메일 죽는다는 것이었다(전 15:31). 매순간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전한 것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행 20:21). 그에게 핑계나 변명은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만이 있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고 많은 성도들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다(행 20:38). 그가 변호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순간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알려졌다.

천국에서 알려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가디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행 9:3-5).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중인이 되었다.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에만 순종하였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서 오는 일을 위하여 나니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행 13:2). 바울은 천국에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 자신의 계획과 뜻은 없었다. 오직 성령을 통한 천국의 음성에만 순종

하였다(행 16:6,7,9). 당시에 총회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울을 이끄고 인도하는 것은 천국이었다(행 18:9,10). 이처럼 하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사역은 평탄하지 않았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그의 시체를 두고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바로 이 때 바울은 삼차원의 세계를 경험하였다(고후 12:2-4). 천국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한 바울은 깨어난 뒤 다시 복음을 전하려 나갔다. 그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그에게도 벗어날 수 없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조차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고후 12:7). 바울은 철저히 성령을 통한 하늘의 음성에만 순종하였다. 바울은 천국에 알려진 복음의 사도였다.

지옥에서 알려진 바울

제사장 스게와와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방자하여 돈을 탐하는 자들이었다. 이때 악한 귀신들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인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삼하여 벗은 몸으로 그 점에 도망하는지라"(행 19:15,16). 이처럼 지옥의 영들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세 가지 세상에서 알려진 바울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바울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나라'(빌 1:21).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딤후 1:12).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그의 노력과 열심 또는 어떤 방법이 아니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였다(갈 1:12). 바울은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관한 것인데, 주님에 관한 것인데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나 자신을 철저히 쳐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나의 것은 사라지고 오직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전 9:27). 우리야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이다. "주 날게 밭 즐겨와라 그 사방 끝을 자 뉘노 주 날게 밭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거서 살라"(찬 47:8). 아멘.

세상을 알기 전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 영아부



신길정목사, 영아부장

영아부에서는 생후 두 돌까지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영아들은 세상을 알기 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아부는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교회학교의 기초가 되는 부서로서 출생 후 최초의 중요한 시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영아부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은 믿음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반 공부 시 선생님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아들을 따뜻한 가슴에 품고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영아부에는 주일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각각 선교관 1층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선생님

기도회와 찬양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준비한 뒤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반별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아들을 복음을 위한 천국일꾼으로 잘 양성하기 위하여 선생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기도회는 물론이고 연구 수업과 가정 심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에는 새 친구 초청 집회를 통해서 전도에 민감하고, 중요 절기에는 말씀과 기도는 물론 교사 찬양, 가족 찬양 및 부모 신앙 간증 등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깨닫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3,4)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세상을 알기 전의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영아부 선생님들로서는 아이들을 만나는 기회와 사랑의 믿음과 사랑을 접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양육하기 전에 양육반은 영아들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접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영아부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알기 전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먼저 알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 더욱 예수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특별히 생후 두 돌까지의 영아들을 둔 초현의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아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성령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길을 함께 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비하신

영혼들과의 만남

가니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따라왔다. 마을 중심에 자리를 정하고 팀원들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읊음을 하면서 찬송가를 몇 번 부르는 동안 모인 인원이 2백 명 정도 되었다. 팀원들은 매우 놀랐다. 현지어로 준비해간 찬송가 악보를 나누어주고 찬송을 여러 번 같이 부르고 앞으로 나와서 부르도록 하였다. 의외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었고 찬송도 함께 불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섯 개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축회전도를 하러 한 집에 들어나니 마당에 사람이 가득히 모여 들었다.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각 사람에게 예수님

첫째 날 한 마을을 찾았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기도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

을 전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운전기사가 우리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또 한 마을에 가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원이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 주었고 의지도 내어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목이 쉬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원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마지막 날 숙소 직원과 가족, 친척들 20여 명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였을 때 온 팀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현지인 운전기사가 “예수 사랑하심” 찬송을 특송으로 불렀을 때 그 검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떠나기 전 많이 두려웠지만, 선교지에서 주님은 두려움보다는 큰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

인성환(민주집사, 16교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동안 팀 훈련 및 영성 훈련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와 선교 파송 예배 시 “선교 현장에서 오직 자기를 부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크리스천이야, 다 알아!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하고 있어.’ 하면서 지식과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기에 나 자신이 너무 부족했다. 사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많은 훈련을 성실히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리잡고 있는 죄성은 선교지에서도 살아났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은 나를 놓지 않았다. 내 안에 죄가 속죄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았고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눈물의 회개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십자가만이 모든 사역의 원동력을 확실히 깨달았다. 자기를 부린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때마다 나는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나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진짜이며, 십자가 복음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았다(딤후 4:17). “주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조종민(민주집사, 7교구)

예수님보다 우리가 살았 때!

뜨거움이 없었던 모태 신앙인인 나는 이번 단기 선교를 계기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단기 선교에 교육이 왜 필요하지도 몰랐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품고 그 기쁨 동역자와 한 곳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그 시간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봉사의 기쁨도 언어 훈련의 즐거움도 기도회와 뜨거움도 모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준비된 사역자로 만들어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주님께 감사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을 이렇듯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훈련에 또 훈련을 통해서 너무도 연약한 종의 신앙을 키워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 기도도 잘 못하는 나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평생 이렇듯 많은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이 죄인을 주님께 맡겨 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안고 있는 불치의 암은 정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고정순(집사, 3교구)

3개월 동안 언어와 영성 훈련을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 열심히 준비하였습니

다. 사역 날짜가 다가오자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이 있었습니

다. 남편에게 특별히 간절할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의 속삭인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

다. 그러나 남편의 대답은 ‘내가 자신이 다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 모두 맡기고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모두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사역자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팀은 학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저희가 찾는 학교에선 학교 안에서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어느 의료 선교팀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약의 부작용으로 선교팀을 불신하게 되어, 그곳 정부 기관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 교장 선생님은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처벌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은 되었지만 팀원들은 저희의 기도 부족과 주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저희가 먼저 앞서서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축회 전도를 하면서 그 동안 배운 언어와 영성 훈련을 통하여 쌓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더욱 담대히 다가갈 수 있었고, 일 대 일 전도를 하면서 더욱 깊이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어린이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힘있게 전했습니

다. 주님의 귀한 선교 사역에 부족한 저희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사역을 마쳤지만 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는 중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문경숙(집사, 11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30(화) - 6월 7(수)	17교구 1지역	김연근
5월 31(수) - 6월 8(목)	7교구 6지역	조종민
5월 31(수) - 6월 9(금)	4교구 12지역	류기명
5월 31(수) - 6월 9(금)	18교구 6지역	이용현
5월 31(수) - 6월 9(금)	18교구 8지역	유상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2(월) - 5월 31(수)	14교구 1지역	김영환
5월 23(화) - 5월 31(수)	3교구 7지역	김옥권
5월 24(수) - 6월 2(일)	1교구 9지역	이승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6(화) - 5월 24(수)	3교구 2지역	허민선
5월 16(화) - 5월 25(목)	8교구 9지역	이인원

충현 전도대 훈련을 마치고

죄인이 전하는 복음

충현 전도대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열심을 가지고 아무 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더욱 말씀에 기초한 기도와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분주함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깨닫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넘쳐나는 죄성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성성을 다하여 온전히 가슴으로 기도하며 눈을 마주보며 전도에 주력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전도의 도구로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용되고 있는 전도의 도구로서 저는, 영혼 살리는 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흠여 지면 전도하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전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승희(집사, 1교구)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

이번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대원들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굳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에게 영원 전부터 감추어왔던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사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알게 하였고,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지식, 자존심 등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딤후 4:2).

박현숙(권사, 9교구)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작년 11월 영아부에서 갓 올라온 믿음 2반 아이들!

엄마 무릎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마리, 몇 주째 손가락을 빨던 은재, 예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던 대별, 경민, 말이라곤 엄마밖에 못했

5월 가족 연합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절로 생각납니다. 가족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 남편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가족 연합예배를 드릴 때 나는 딸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뒤척 저리 뒤척하며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모습에 한 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걱정이 앞서, 나 역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우리 가족은 신령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안타까운 것은 남편의 빈 자리였습니다. 나의 오른쪽 자리는 남편의 자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주님! 오늘도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네요.”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저와 남편을 붙잡아 여기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오른쪽 자리에 남편이 앉아 가족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가까이 계신 주님이시지만 너무나 멀리 돌아 찾아온 남편, 몸의 연약함을 안고 찾아온 남편, 오늘 남편의 모습을 살짝 보니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해 보였습니다.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와 함께 가리라”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장경숙(집사, 6교구)



던 아이들이 어느 새 7개월째 접어들면서 많이 자란 것을 발견합니다. 엄마, 아빠 떨어져서 의젓하게 예배하는 동민이, 찬양대의 제 일 막대로 찬양하는 예지, 찬송가에 맞춰 몸짓으로, 입술로 찬양하는 은재, 시은, 마리, 명이, 우리 반에서 제일 점잖은 현준이는 우리 반의 보배이자 예수님의 보배들입니다.

부활절에 “선생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셨어요!” 하면서 인사 해줬던 대영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은 출석을 부를 때 손들고 “네(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짧은 말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던지는 질문엔 아직 대답이 없지만,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세요.”

김경희(교사, 유아부)

교회탐방 장년 3부(교사회)

영적 청년

자꾸만 주저앉고 싶은 나이, 일을 버리고보라는 절고 싶은 나이, 낯선 길보다는 낯익은 길로 가고 싶은 나이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다. 주님은 힘을 주셨고, 선한 주의 일을 하게 하였고 낯선 길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설게 되었다. 장년 3부에 가서 영적 청년들을 만나 보자.

장년 3부를 소개해 주시지요?

장년 3부는 60대 성도들 공동체입니다. 표어는 "십자가를 생각하자"입니다. 어찌보면 60대는 틀에 박힌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깨뜨리는 신앙 생활을 하기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신광철 장로, 부장)

장년 3부를 통한 은혜는?

쉬고 싶은 분위기에 젖기 쉬운 연령층이지만요. 그러나 아직도 구성원들은 더욱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연덕 목사, 지도)

부서 중에서 출석률이 아주 높은 부서라고 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나 집합한 교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도 자주 전과 신앙하여 학생들과 믿음을 나누며 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승익 안수집사)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높은 출석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고 지밀하게 대응됩니다. (박우연 안수집사)



초청 잔치의 열매가 크셨는데 어떤 점에 주력하셨나요?

무엇보다 초청 잔치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산, 감산 등을 중심으로 노방 전도도 했습니다. 평일도 스무 명이 넘는 교사들이 나와서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김연태 목사, 부장)

주의 선한 일을 하라는 믿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이지요. (임연덕 목사)

60대에 장년 3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60대의 연령은 하던 일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주저앉고 싶은 이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재충전하는 부서입니다. 이를테면 동기를 부여하는 부서입니다. (강동형 안수집사)

장년 3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노후부터 남는

서기입니다. 외롭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부서에 와서 영적 친구들을 만나면 신앙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전국을 향한 같은 길을 걸으면서 회복할 기회를 제공받지요. (이연실 권사)

현재 장년 3부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전도와 선교와 봉사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한 해겠다는 마음을 깨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광철 장로)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구 선교가 끝나면 곧바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승익 안수집사)

60대의 성도님들을 장년 3부로 초대합니다. 사람이 참한 곳입니다. 작은 수고에도 주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 주시는 부서입니다. 오셔서 복음의 은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이연실 권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활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동형 안수집사)

우리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청년입니다. (김연태 안수집사)

주 안에서 육신의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은 주를 향한 믿음만을 카운트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청년들이다. "내 우애와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거지이시라"(시 73:26).

(권금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주셔서 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인인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랄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기쁨 같고 코로써 맘 오사 함께 해하며 내 짐을 지시네** 누구누가 그렇지만 나에게도 역시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짐들을 말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지 못한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셨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길 때 주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산소량을 주셨다. **회개하시라하고 주님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에 행렬하여 두려워 할 때에 승리의 의가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밀려올 때마다 참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이 구절은 언제나 나에게 새 힘을 준다. **편민이 거두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의와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타락하지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나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음을 찬양한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풍족한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진심으로 찬양할 뿐이다. **그 은혜가 내게 주시니 이 모든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크하네** 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만을 찬양한다.

최희진 (권사, 김마누엘 찬양대)

♡ 새 · 가 · 족 · 율 · 환 · 영 · 함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	연도	번호	성명	교구 소속	연도	번호	성명	교구 소속	연도	번호	성명	교구 소속	연도	번호	성명	교구 소속	연도
1519	유기복	19 대북부 유원회	19	1556	신동철	19 청년1부 최민희	19	1593	최승호	4 청년부 김광재	19	1630	김지훈	19 중동부 민준기	19	1667	김형주	7 청년2부 김광재	19
1520	송윤수	2 청년1부 박복희	19	1557	최희철	2 청년2부 박태민	19	1594	강유숙	4 청년1부 김광희	19	1631	권미희	19 청년1부 석영희	19	1668	박세훈	19 청년1부 최수경	19
1521	장정원	19 중동부 최준서	19	1558	권민호	2 청년2부 박태민	19	1595	이영희	13 청년2부 이도현	19	1632	이민우	9 청년1부 이숙연	19	1669	이영희	8 청년2부 김광희	19
1522	조호순	2 청년2부 이숙연	19	1559	신우진	19 중동부 구재희	19	1596	문준호	13 중동부 정현민	19	1633	이영희	19 대북부 한미희	19	1670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523	한현호	19 중동부 김광희	19	1560	김다영	19 중동부 신광희	19	1597	이민우	19 청년1부 정현민	19	1634	권미희	14 청년2부 이희선	19	1671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524	김현호	19 고동부 박태민	19	1561	권민호	19 청년1부 권준희	19	1598	송복희	2 청년1부 정현민	19	1635	노재호	1 소동부 최수경	19	1672	김광희	14 청년2부 이희선	19
1525	김광희	19 청년2부 박태민	19	1562	김광희	19 청년2부 정현민	19	1599	송복희	19 청년1부 이희선	19	1636	정현민	1 소동부 박태민	19	1673	최희철	15 청년1부 박태민	19
1526	김광희	19 중동부 김광희	19	1563	유정원	19 청년1부 유정원	19	1600	김광희	19 청년2부 정현민	19	1637	박태민	19 대북부 박태민	19	1674	박태민	15 청년1부 박태민	19
1527	김광희	19 중동부 정현민	19	1564	이영희	19 청년1부 이영희	19	1601	송복희	19 청년1부 박태민	19	1638	이민우	15 청년2부 조준희	19	1675	최희철	15 청년1부 박태민	19
1528	박우철	19 대북부 장 현	19	1565	김광희	19 청년1부 이영희	19	1602	이영희	19 대북부 이영희	19	1639	박태민	1 청년1부 송복희	19	1676	박태민	19 대북부 박태민	19
1529	박태민	19 중동부 유정원	19	1566	이영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03	김광희	12 청년2부 김광희	19	1640	조준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77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530	김광희	19 고동부 이영희	19	1567	이영희	7 청년1부 김광희	19	1604	박태민	19 대북부 김광희	19	1641	송복희	17 청년2부 조준희	19	1678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531	최태민	19 중동부 박태민	19	1568	김광희	19 청년1부 이영희	19	1605	이영희	19 고동부 이영희	19	1642	정현민	3 청년1부 박태민	19	1679	이영희	12 청년2부 이영희	19
1532	김광희	19 중동부 최태민	19	1569	정현민	19 청년1부 이영희	19	1606	이영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43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80	유정원	19 대북부 박태민	19
1533	김광희	19 중동부 이영희	19	1570	유기복	8 청년2부 박태민	19	1607	정현민	3 청년1부 김광희	19	1644	송복희	8 청년1부 김광희	19	1681	최태민	19 청년1부 김광희	19
1534	이영희	2 청년2부 정현민	19	1571	박태민	19 청년2부 박태민	19	1608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45	송복희	8 청년1부 김광희	19	1682	김광희	7 청년2부 김광희	19
1535	민준기	19 청년2부 박태민	19	1572	최희철	19 청년2부 박태민	19	1609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46	송복희	8 청년1부 김광희	19	1683	최태민	8 청년1부 김광희	19
1536	김광희	19 청년2부 박태민	19	1573	송 복	19 청년2부 김광희	19	1610	김광희	19 청년1부 박태민	19	1647	노재호	1 청년1부 오영민	19	1684	유정원	19 대북부 김광희	19
1537	김광희	19 청년2부 김광희	19	1574	송 복	19 청년2부 김광희	19	1611	노재호	19 청년1부 박태민	19	1648	송복희	8 청년1부 김광희	19	1685	유정원	19 대북부 김광희	19
1538	김광희	19 청년2부 김광희	19	1575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12	김광희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49	송복희	8 청년1부 김광희	19	1686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39	조준희	19 중동부 박태민	19	1576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13	최태민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50	송복희	8 청년1부 김광희	19	1687	유정원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0	김광희	19 중동부 오영민	19	1577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14	최태민	19 청년1부 김광희	19	1651	송복희	8 청년1부 김광희	19	1688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1	김광희	19 중동부 박태민	19	1578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15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2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89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2	송복희	19 중동부 김광희	19	1579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16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3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0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3	이영희	19 중동부 김광희	19	1580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17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4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1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4	최태민	19 고동부 박태민	19	1581	최태민	9 청년2부 김광희	19	1618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5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2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5	최태민	19 고동부 박태민	19	1582	최태민	9 청년2부 김광희	19	1619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6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3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6	이영희	19 고동부 김광희	19	1583	이영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0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7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4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7	김광희	19 중동부 오영민	19	1584	김광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1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8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5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8	김광희	19 대북부 박태민	19	1585	유정원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2	송복희	9 청년1부 김광희	19	1659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6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49	김광희	2 청년1부 박태민	19	1586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3	송복희	8 청년2부 김광희	19	1660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7	김광희	14 청년1부 박태민	19
1550	김광희	2 청년1부 박태민	19	1587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4	송복희	8 청년2부 김광희	19	1661	김광희	15 청년1부 김광희	19	1698	김광희	12 청년1부 노영민	19
				1588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5	송복희	17 청년2부 송복희	19	1662	김광희	3 청년1부	19	1699	정현민	19 대북부 최복원	19
				1589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6	송복희	19 중동부 김광희	19	1663	송복희	3 청년2부	19				
				1590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7	송복희	19 중동부 김광희	19	1664	김광희	19 대북부 박태민	19				
				1591	송복희	9 청년2부 김광희	19	1628	송복희	19 중동부 김광희	19	1665	김광희	19 대북부 김광희	19				
				1592	송복희	11 청년1부 박태민	19	1629	송 복	19 청년2부 김광희	19	1666	송 복	19 청년2부 김광희	19				

※ 출석률에 따라 한 교구에서 다수의 출석하는 교구는 본 교구로 분류하고, 소수의 출석하는 교구로 분류한다.

교회소식

■ 선 교